

광역의회 20년·민선 5기 1년 시·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집행부와 상생 지역발전 이끌 것”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취임 1년을 앞둔 28일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다면, 앞으로는 시정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있지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집행부와 함께 동반자적인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의장과와의 일문일답.

1년 동안 주요 활동과 성과를 자랑한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방문과 각종 연찬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불필요한 예산 83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혁신적으로 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의회 역할 중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당연히 충실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는 것도 의회의 몫이다. 하지만, 의회가 무조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도 시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합리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비판만 앞세웠다는 지적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정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하겠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집행부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적인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품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첨단사업 투자



시와 경기도 의회에서는 몇 년째 시행중이다. 우리 의회의 경우 오래전부터 20여 명의 의원들이 월 200여만 원의 사비를 들여 사설 보좌관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보좌관을 뚝으로써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넓히고 전문화가 가능하다. 또한, 각종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폭도 넓어져 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유급보좌관이 꼭 필요한데도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은 절차와 시기 등 갖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유급보좌관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된다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회 내 연구모임이 활동이 활발하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나.

▲광주시의 주요사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6대 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9차례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1회, 정책간담회 1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장

필요 예산 83억 삭감... 견제·감시 충실

유급보좌관제 필요... 여건되면 도입 추진

기업 유치·아시아문화중심도시 힘 보태 것

와 기업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육성기반과 지원 여건도 충분히 조성해야 한다. 또 하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시민·사회의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꼭 필요한 제도인가.

▲유급보좌관제도는 꼭 필요하다. 서울

엔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증진 조례,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했다.

-향후 의회 운영 방향은.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을 철저히 검토 심의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것이다. 하지만, 일차적 창출과 국민확보, 국가사업 유치와 같은 지역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사안에서는 집행부와 공조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 현안 목소리 대변에 더 충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호균(목포 3·민주) 전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최근 F1 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민들간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화와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미흡했다”며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기회를 넓히고 보다 나은 9대 의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장과와의 일문일답.

-지난 1년간 굵직한 주요 현안이 많았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자랑한다

▲F1 대회를 비롯해 ‘농도(農道)’인 만큼 농민들의 쌀값 안정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았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4대강 사업과 맞물리면서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 선정 문제



담당하는 입법지원관을 두고 상임위원회에도 입법정책개발과 의안분석업무를 맡는 입법정책전문위원을 배치했다.

-의원 연구모임도 많아졌다.

▲농어촌발전연구회, 문화관광정책연구회, 희망공공교육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 한옥활성화연구회, 공유재산연구포럼, 명품도시연구회, 지방재정연구회 등 8개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졌다. ‘전남도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지난해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193건의 다양한 조례안·결의안 등을 의결하거나 채택하는데 도움이 됐다.

-여수세계박람회 등 4대 국제 행사에 예정돼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4대 행사는 전남 발전을 좌우할만한 주요 이벤트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 201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유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한 것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만한 행사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지금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감사원 결과나 언론 등으로 통해 전해지지 않았는가.

의회는 박람회가 국내외에 전남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향후 의회 운영방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위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의회운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9대 의회 들어 과거 의회운영과 달라진 점은.

▲의회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활발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일문일답식 도정질의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연구·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다.

예를 들면 정책개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의정지원관 및 의원 입법 지원 업무부

를 개량하는 게 아닌 고속 신선으로 건설해야

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민 기대 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도민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 현안인 대형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 ‘2011년 농업 정책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농민 목소리를 대변했고 영산강살리기특별위원회는 영산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고스란히 듣고 타당성 검증에도 나섰다.

KTX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선을 개량하는 게 아닌 고속 신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등에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9대 의회 들어 과거 의회운영과 달라진 점은.

▲의회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활발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일문일답식 도정질의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연구·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다.

예를 들면 정책개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의정지원관 및 의원 입법 지원 업무부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할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정직영/원벽한시공/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런(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 드립니다.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공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 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KWH)	설치시 청구요금	월감 요금
8만원 (연 45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연 45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연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연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연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89,400원
25만원 (연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연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